

## 농가 유형별 소득 불평등도 분해\*

이두영\*\* 박준기\*\*\* 김미복\*\*\*\* 박지연\*\*\*\*\*

### Keywords

농가소득(farm household income), 소득 불평등(income inequality),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소득불평등 요인분해(inequality decomposition), 표준영농규모(standard farm size)

### Abstract

This study uses the Gini coefficient to analyze farm household income inequality and decomposes the inequality by farm types during 2008~2017. The Gini coefficient is decomposed into three elements: between-groups, within-groups, and residual term contributions, and the farm households are classified by farm owner's age and standard farm size. This study shows that the Gini coefficient has not changed significantly in the last 10 years. However, the relative contributions of the elements have changed significantly due to the structural change in agriculture: the aging of farm owners and the decrease in farm size per household. Specifically,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small and older farmers to the Gini coefficient has increased over time.

### 차례

- |                 |             |
|-----------------|-------------|
| 1. 서론           | 3. 분석 결과    |
| 2. 분석 자료와 분석 방법 | 4. 결론 및 시사점 |

---

\* 본 논문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7 농업경영체 실태 분석』과 『농업·농촌 정책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1/5)』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음. 이 연구는 연구자 개인의 관점일 뿐 연구자 소속기관의 관점을 대변하지 않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교신저자. e-mail: jkpark@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 1. 서론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업 경영의 불안정과 농가소득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농산물의 시장 경쟁이 심화되면서 농가 간 소득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한 소득 불평등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즉, 농가소득의 불평등 심화는 농촌 사회의 불안정을 유발하고, 저소득층의 농촌 이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 문제를 농가경제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농가소득 불평등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불평등도 분석의 대표 지표인 지니계수를 활용하였음에도 농가 유형화 방식에서 연령과 영농규모의 개별적 접근이 아닌 연계방식을 적용하여 농가 특성별 소득 불평등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농가 유형별로 농가소득원별 불평등도가 전체 농가소득 불평등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농가소득 불평등도 관련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이 다수의 연구가 있다. 이병기(2000)는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이용하여 한국경제 위기 전후 농가소득 불평등도와 요인을 분석하였다. 안동환(2004)은 일반적 엔트로피 방법을 적용하여 농가경제조사와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그룹별·소득원천별로 소득 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박준기 외(2004)는 지니계수와 대수편차평균(Mean Log Deviation)을 이용하여 농가소득을 원천별로 분석하고, 농가소득 불평등도의 요인을 일반적 엔트로피(Generalized Entropy)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연령별·표준영농규모별로 분석하였다. 정진화 외(2012)와 오내원 외(2013)는 EGR지수·DER지수 등 양극화지수를 이용하여 소득양극화 정도를 계산하였고, 고갑석(2016)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역별·소득원천별로 지니계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우병준 외(2018)는 지니계수, 울프슨(Wolfson)지수, 피케티적 접근(Piketty 2014)을 이용하여 농가소득의 불평등도를 분석하였고, 허등용(2018)은 샤플리 값 분해(Shapley value decomposition)를 이용하여 소득원천별로 지니계수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농가소득의 불평등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원천별 소득 불평등도는 높은 편이지만 서로 소득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고, 농가소득의 불평등도는 개별항목의 소득

불평등도보다는 낮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결과들은 주로 농가의 평균적 관점에서 소득원천별로 소득 불평등도를 분석하여 농가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또한 농가 유형별 소득 불평등도 실태와 유형별 소득 불평등도가 전체 소득 불평등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하였다.

농가 유형화는 농가의 특성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농가 유형 구분 방식이 제시되었다. 김수석 외(2005)는 군집분석을 통해 농가를 유형화하였으며, 김한호 외(2012)에서는 의사결정나무 방법을 이용하여 농가를 유형화하였다. 황의식 외(2003, 2013), 김미복 외(2016), 우병준 외(2017, 2018)에서는 표준영농규모와 연령을 활용하여 유형화하였고, 이태호(2016)와 황수철(2018)은 농업총수입과 연령을 이용하여 농가를 유형화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농가 유형화 방식 중에서 생산 규모와 경영주 특성의 대표 요인으로 주로 활용되어 온 표준영농규모(최양부 1983)<sup>1</sup>와 연령을 채택하였다 (황의식 외 2003; 김미복 외 2016; 우병준 외 2017, 2018). 이 연구에서 사용한 표준영농규모와 연령을 통한 유형화는 농가의 기술, 작목, 축종, 영농형태 등 농가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는 데 한계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연구는 표준영농규모가 최대한 농가의 고정자산(토지, 건물, 기계, 대식물, 대동물) 등 물질적 요소를 영농규모로 변환함으로써 이 한계점을 완화한다고 판단한 다수 선행연구의 방식을 따랐다.<sup>2</sup>

이 연구에서는 경영주 연령과 표준영농규모로 농가를 유형화하고, Lambert and Aronson(1993), 임병인 외(2005), Bellù and Liberati(2006)의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그룹(유형)별 지니계수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특히, 그룹 내 지니계수 기여도, 그룹 간 지니계수 기여도, 그리고 그룹 내 지니계수 기여도와 그룹 간 지니계수 기여도로 설명되지 않는 기여도 부분(잔차항)에 대하여도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의 소득원천별 소득 불평등도 분석이나 연령과 영농규모 그룹을 개별적으로 분석한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유형화를 통하여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이를 통

1 표준영농규모(최양부 1983)는 농가의 고정자산(토지 제외, 건물, 기계, 대식물, 대동물)의 가격을 농지가격으로 나누어 경지면적으로 환산한 후 경지면적과 합한 규모의 개념이다. 여기에서는 최양부(1983), 박준기 외(2004), 김미복 외(2016), 우병준 외(2018), 박준기 외(2018) 등에서 사용한 표준영농규모 산출방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표준영농규모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SSF(\text{표준영농규모}) = L_A + \frac{F_V}{L_P}, \text{ 여기서 } L_A \text{ 는 농가의 경지면적, } F_V \text{ 는 고정자산평가액, } L_P \text{ 는 전국평균지가를 의미한다.}$$

2 토지 면적만을 기준으로 농가를 유형화할 경우 토지 외 고정자산을 주로 투입하는 축산 및 시설원예 등의 농가 규모가 과소 추계될 수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표준영농규모 개념을 적용하였다. 영농형태별 토지면적과 표준영농규모 간 관계의 일관성 및 안정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9, 2013, 2017년 자료를 분석하였다. 토지면적 대비 표준영농규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농형태별 특성에 따른 편차는 있지만 특정 영농형태의 연도 간 차이는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여 유형별로 농가소득의 불평등도를 파악하고, 농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 2. 분석 자료와 분석 방법

### 2.1. 분석 자료

농가의 소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청에서 매년 조사하는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였다.<sup>3</sup> 분석기간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의 명목소득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런데 농가경제조사는 2,600개의 표본가구를 5년마다 교체하고, 이 연구의 분석대상 기간 중 2013년에 표본교체가 이루어졌다. 농가경제조사의 표본교체 시 소득의 연속성이 고려되지만, 2008년부터 2012년 분석 결과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분석 결과를 구분하여 해석하였다. 2014년부터 농가경제조사에 단독가구를 나타내기 위한 가중치가 사용되었지만, 자료의 일관성을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2인 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농가소득이 음의 값을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분배지표 계

<영농형태별 평균 토지면적과 표준영농규모>

단위: ha

구분	평균	논벼	과수	채소	특용작물	화훼	일반발작물	축산	기타	2종겸업	
2009	토지면적	1.2	1.6	1.7	1.1	1.5	1.9	1.0	1.3	1.2	0.9
	표준영농규모	2.1	2.6	2.4	2.0	3.0	2.3	1.8	2.6	2.0	1.4
2013	토지면적	1.1	1.4	1.8	1.0	1.3	0.6	0.9	1.6	1.2	0.7
	표준영농규모	2.0	2.7	2.6	1.7	1.5	1.7	1.9	4.7	3.2	1.2
2017	토지면적	1.1	1.3	1.2	1.1	1.5	0.8	1.1	1.7	1.5	0.7
	표준영농규모	1.8	2.6	1.8	1.6	1.6	1.4	2.0	3.3	2.5	1.2

자료: 통계청 MDIS, 농가경제조사.

3 농가경제조사는 농가경제의 실태를 파악하여 농업정책 수립, 농업경영개선, 농업문제 연구 등을 수행하려는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농가수지·부채·자산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통계청 2016).

산방법에 따라 농가소득(=농업소득+농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 항목별로 음수를 0으로 처리한 후 합해서 계산하였다(홍민기 2016).<sup>4</sup>

## 2.2. 분석 방법

소득 불평등도 분석을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울프슨(Wolfson)지수, 대수편차평균(Mean Log Deviation), EGR지수, DER지수, FW지수 등 여러 분석 방법이 존재하지만, 농가 유형별 그룹 간, 그룹 내, 잔차(그룹 간과 그룹 외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를 통한 소득 불평등도 분석을 위하여 지니계수를 이용하였다. 지니계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text{지니계수} = \frac{\sum_{i=1}^n \sum_{j=1}^n |y_i - y_j|}{2 \sum_{i=1}^n \sum_{j=1}^n y_j} = \frac{\sum_{i=1}^n \sum_{j=1}^n |y_i - y_j|}{2n \sum_{j=1}^n y_j}$$

여기서  $y_i$ 는 농가( $i$ )의 소득,  $n$ 은 전체 농가의 수,  $\mu$ 는 전체 농가의 평균소득을 의미한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 정도에 따라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1이면 완전불평등한 경우를 의미하고, 그 값이 0이면 모든 구성원의 소득이 동일한 완전 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USRISD(2013)은 보통 지니계수의 값이 0.4가 넘으면 불평등도가 높은 상태라 평가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해석을 따랐다.

이 연구는 지니계수의 그룹별 기여도 분해를 위하여 Lambert and Aronson(1993), 임병인 외(2005), Bellù and Liberati(2006)에 제시된 그룹별 지니계수 분해방법을 사용한다. 지니계수는 다음과 같이 분해(Decomposition)될 수 있다.

$$G = G_B + G_W + R = G_B + \sum a_k G_k + R,$$

여기서  $G$ 는 지니계수를 의미하고,  $G_B$ 는 그룹 간 지니계수를 의미한다.  $G_W$ 는 그룹 내 지니계수를 의미하며,  $G_k$ 는 각 그룹의 지니계수를 의미한다.  $k = 1, 2, \dots, m$ 으로  $m$ 개의 전체 농가 내 그룹 개수를 의미한다.  $R$ 은 잔차항으로 그룹 간 소득이 겹치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룹 내 지니계

4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소득원천별 농가소득 동향은 부표 1을 참고하기 바란다.

수와 그룹 간 지니계수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의미한다.

그룹을 이용한 지니계수 분해는 직관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먼저 표본 전체의 지니계수는 각 그룹의 인구비중과 소득에 따라 각 그룹의 가중 지니계수의 합( $\sum a_k G_k$ )과 각 그룹의 평균소득과 전체 평균소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그룹 간 지니계수( $G_B$ )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룹 간 소득이 겹쳐지는 부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잔차( $R$ )를 고려한다. 유형에 따른 농가의 구분은 소득에 따른 구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룹 간 평균소득이 서로 다르더라도, 평균소득이 낮은 그룹의 가장 높은 가구소득이 평균소득이 그보다 높은 다른 집단의 가장 낮은 가구소득보다 높아서 소득이 집단 간 겹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고려한 것이 잔차항이다. 따라서 잔차항의 값이 클수록 그룹 간 소득의 범위가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잔차항의 값이 0이면, 그룹에 따라 가구소득의 높고 낮음이 명확함을 의미한다.

지니계수 분해는 수학적으로 다음의 과정을 통해 계산된다(Lambert and Aronson 1993; 임병인 외 2005). 여기에서는 세 개의 부분 집단( $m=3$ )으로 이루어진 전체 집단을 가정한다. 지니계수는 기하학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높은 가구 순으로 정렬하였을 때, 완전평등선(OA)과 로렌츠 곡선(Lorenz curve,  $L(q)$ )과의 차이 면적을 완전평등선의 삼각형 면적(OA1)으로 나누어 준 값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체 집단이 세 개의 부분 집단으로 나누어졌을 때, 각 집단을 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높은 가구로 정렬하면 소득의 분포는  $C(q)$ 의 곡선으로 이루어지며, 각 집단의 완전평등분배는  $L_B(q)$ 처럼 표현되어 로렌츠 곡선과는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 각 집단의 평균은 각각  $\mu_1 \leq \mu_2 \leq \mu_3$ 로 표현되어 전체 평균  $\mu$ 와 차이를 보인다.<sup>5</sup>

<그림 1>을 이용하여 지니계수를 계산하였을 때, 지니계수의 면적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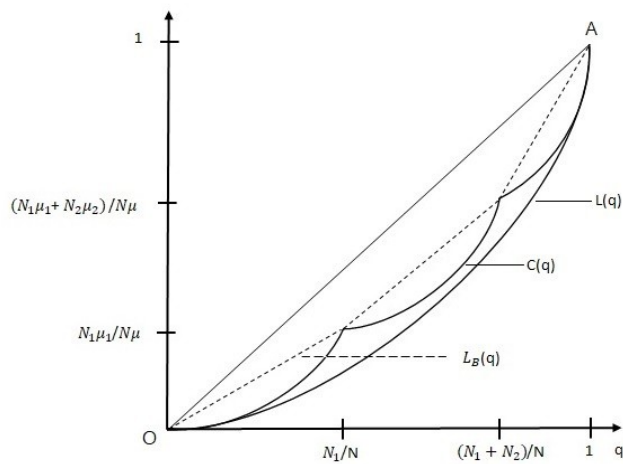
$$\begin{aligned} G &= G_B + \sum a_k G_k + R = 2 \int_0^1 [q - L(q)] dq \\ &= 2 \int_0^1 [q - L_B(q)] dq + 2 \int_0^1 [L_B(q) - C(q)] dq + 2 \int_0^1 [C(q) - L(q)] dq \end{aligned}$$

이를 통하여 지니계수 분해식 각 항의 값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지니계수( $G$ )의 값을 계산하고,

5 Lambert and Aronson(1993)는 계산과 이해의 편의를 위해 일반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가구 수의 합과 가구소득의 합을 각각 1로 변환하여 계산하였다.

그 다음에 각 그룹의 가구를 그 그룹의 평균소득으로 대체하여 그룹 간 지니계수( $G_B$ )를 계산한다. 그리고 구간별 가중치( $\sum \frac{N_k \mu_k}{N^2 \mu} G_k$ )를 고려한 그룹 내 지니계수( $G_W$ )를 계산하고, 마지막으로 항등식의 원리에 따라 잔차( $R$ )를 계산한다.<sup>6</sup>

그림 1. 지니계수 분해



자료: Lambert and Aronson(1993).

### 3. 분석 결과

이 장에서는 연령과 표준영농규모를 이용한 네 가지 유형별 소득 불평등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연령과 표준영농규모를 개별적으로 고려한 소득 불평등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농가 유형화를 통한 소득 불평등도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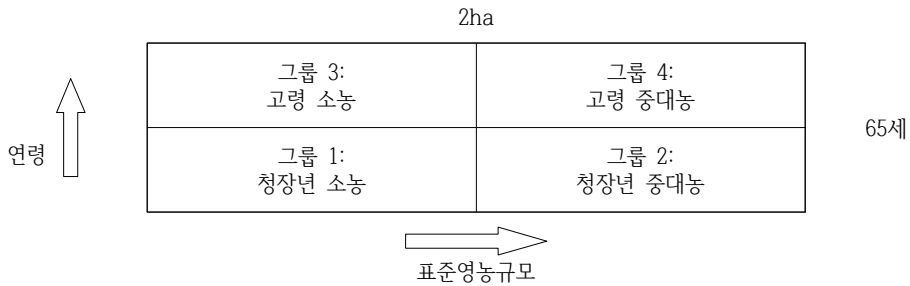
농가의 유형화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준영농규모와 연령을 사용한

6 잔차( $R$ )를 계산하는 과정 중 지니계수( $G$ )의 값, 그룹 간 지니계수( $G_B$ )의 값, 그룹 내 지니계수( $G_W$ )의 값을 구하는 순서는 무방하다. 자세한 증명과정은 Lambert and Aronson(1993)을 참고하기 바란다.

다. 구분 기준은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표준영농규모 2ha와 경영주 연령 65세 이상을 사용한다(김미복 외 2016; 우병준 외 2017, 2018; 박준기 외 2018).

경영주 연령 65세 미만은 청장년농가, 65세 이상은 고령 농가로 구분하고, 표준영농규모 2ha 미만은 소농, 2ha 이상은 중대농으로 구분한다. <그림 2>에서와 같이 전체 농가를 청장년 소농(65세 미만, 2ha 미만), 청장년 중대농(65세 미만, 2ha 이상), 고령 소농(65세 이상, 2ha 미만), 고령 중대농(65세 이상, 2ha 이상) 등 네 개의 그룹으로 유형화하였다.<sup>7</sup>

그림 2. 표준영농규모와 경영주 연령을 고려한 유형화



자료: 박준기 외(2018) 참고.

### 3.1. 연령별 소득 불평등도 분석

<표 1>은 연령별 지니계수 기여도를 분석한 표이다. <표 1>은 2008년부터 2017년 까지 연도별로 경영주 연령 구분별 인구 구성비, 평균연령, 평균소득, 연령별 평균 농가소득, 전체 지니계수, 그룹 지니계수를 보여준다. 또한 <표 1>은 상대적 그룹 내 지니계수 기여도, 그룹 간 지니계수 기여도, 잔차(그룹 내 지니계수 기여도와 그룹 간 지니계수 기여도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를 통해 각 그룹을 이용한 지니계수 분석을 보여준다. 상대적 기여도는 전체 지니계수의 값에서 각 그룹을 이용

<sup>7</sup> 이 연구에서는 소농과 중대농, 청장년농과 고령농의 기준을 기본적으로 선행연구에서 분류한 방식을 차용하였다. 이러한 연구에서 65세와 표준영농규모 2ha를 기준으로 농가를 분류한 이유는 농가의 특성에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65세 전후를 기준으로 경영규모의 확대보다는 경영규모의 축소가 이루어지며, 표준영농규모 2ha를 기준으로 농업소득의 비중이 다른 소득보다 높아지고 전문성이 증가한다. 이러한 기준은 경영주의 건강수준 향상과 농업의 수익성 변화에 따라 향후 변화할 수 있다.



한 지니계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며 그 합은 1이다.

농가소득의 지니계수는 2008년 0.39에서 2012년 0.43으로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 이후로 0.41 수준을 유지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농가의 농가소득 불평등도는 최근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연령별 지니계수 기여도 결과는 살펴보면, 65세 미만 농가(청장년 농가)의 청장년 농가의 지니계수는 분석기간 동안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청장년 농가의 지니계수는 2008년 0.38에서 표본이 바뀌는 2013년 0.37이고, 2017년은 0.38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한편, 경영주 연령 65세 이상 농가(고령 농가)의 지니계수는 2008년 0.36에서 2012년 0.41로 증가하였지만, 2013년 0.38에서 2017년 0.37로 낮아져 전체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체 농가의 농가소득 불평등도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처럼 청장년 농가와 고령 농가의 농가소득 불평등도도 각각 큰 변화가 없다. 하지만 청장년 농가와 고령 농가 각각의 그룹 지니계수보다 전체 지니계수의 값이 높은 것은 각각의 그룹 지니계수로써는 전체 지니계수를 모두 설명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표 1>의 결과는 지니계수의 기여도 측면에서 지난 기간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청장년 농가의 전체 지니계수에 대한 기여도는 감소하고 고령 농가의 기여도는 증가하였다. 2008년 청장년 농가의 전체 농가의 지니계수에 대한 그룹 내 지니계수의 상대적 기여도는 0.26이었으나 2012년에는 0.16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2013년 상대적 기여도는 0.23에서 2017년 0.13으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2008년 고령 농가의 그룹 내 지니계수 상대적 기여도는 0.20에서 2012년 0.31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2013년 상대적 기여도는 0.21에서 2017년 0.33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화에 따른 고령 농가의 상대적 비중 증가를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한 농가의 평균연령은 2008년 63.9세에서 2017년 68.9세로 상승하였다. 그 결과 2008년 청장년 농가와 고령 농가의 인구 구성비는 각각 0.47과 0.53이었는데 2017년 각각 0.31과 0.69로 변화하였다. 이는 고령 농가의 평균소득이 전체 평균소득보다 낮지만 인구 비중의 증가 효과가 더 커서 그룹 내 지니계수의 기여도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룹 간 지니계수의 상대적 기여도 또한 지난 기간 변화를 보인다. 2008년 그룹 간 지니계수의 상대적 기여도 0.30에서 2012년 0.32로 증가하였고, 2013년 0.37에서 2017년 0.38로 증가하였다. 이는 농가의 평균소득은 증가하고 있지만 고령농의 소득은 정체하여 평균소득과 고령농가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전체 농가의 지니계수가 큰 변화가 없는 것과 그룹 간 지니

계수의 기여도 또한 큰 변화가 없는 것은 고령농의 비중 증가와 고령 농가와 평균 농가의 소득 격차가 감소함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향후 고령농의 비중이 추가적으로 증가하면 농가소득의 지니계수는 오히려 그룹 간 지니계수의 기여도의 하락으로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1. 연령별 지니계수 기여도

단위: 세, 천 원

연도	경영주 연령	인구 구성비	평균연령	평균 소득	그룹 평균소득	지니계수	그룹 지니계수	상대적 기여도		
								그룹 내	그룹 간	잔차항
2008	65세 미만	0.47	63.9	30,521	39,134	0.39	0.38	0.26	0.30	0.23
	65세 이상	0.53			24,124			0.20		
2009	65세 미만	0.44	64.7	30,814	42,041	0.40	0.37	0.24	0.37	0.18
	65세 이상	0.56			23,046			0.21		
2010	65세 미만	0.42	65.4	32,121	45,276	0.42	0.39	0.23	0.37	0.18
	65세 이상	0.58			24,289			0.22		
2011	65세 미만	0.39	66.2	30,148	43,979	0.42	0.39	0.19	0.35	0.20
	65세 이상	0.61			24,223			0.26		
2012	65세 미만	0.36	67.1	31,031	45,345	0.43	0.38	0.16	0.32	0.21
	65세 이상	0.64			25,744			0.31		
2013	65세 미만	0.44	65.7	34,524	47,801	0.41	0.37	0.23	0.37	0.18
	65세 이상	0.56			25,950			0.38		
2014	65세 미만	0.40	66.7	34,950	50,612	0.42	0.39	0.21	0.38	0.18
	65세 이상	0.60			26,640			0.37		
2015	65세 미만	0.37	67.4	37,215	54,530	0.41	0.39	0.18	0.38	0.17
	65세 이상	0.63			28,677			0.37		
2016	65세 미만	0.33	68.3	37,197	56,734	0.41	0.38	0.15	0.39	0.15
	65세 이상	0.67			29,228			0.37		
2017	65세 미만	0.31	68.9	38,239	58,958	0.41	0.38	0.13	0.38	0.16
	65세 이상	0.69			30,652			0.37		

주: 명목소득 기준임.

자료: 통계청 MDIS([mdis.kostat.go.kr](http://mdis.kostat.go.kr)).

잔차항의 기여도는 2008년 0.23에서 2012년 0.21로 감소하였고, 2013년 0.18에서 2017년 0.16으로 감소하여 그룹 내 지니계수의 기여도와 그룹 간 지니계수의 기여도에 비하여 전체 지니계수에 기여하는 바가 낮은 편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령에 따른 소득의 차이가 나타나 소득의 겹침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3.2. 표준영농규모별 소득 불평등도 분석

<표 2>는 표준영농규모별 지니계수 기여도를 분석한 표이다. <표 2>는 각 연도별로 표준영농규모 구분별 인구 구성비, 평균 표준영농규모, 평균소득, 표준영농규모별 농가소득, 전체 지니계수, 그룹 지니계수를 보여준다. <표 2> 또한 <표 1>에서와 같이 상대적 그룹 내 지니계수 기여도, 그룹 간 지니계수 기여도, 잔차의 기여도를 제시한다.

2ha 미만 농가(소농)의 지니계수는 2008년 0.37에서 2012년 0.40으로 증가하였고, 2013년 0.40에서 2017년 0.39로 다소 감소하였다. 2ha 이상 농가(중대농)의 지니계수는 2008년 0.40에서 2012년 0.43으로 증가하였고, 2013년 0.39에서 2017년 0.41로 다소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소농과 중대농의 2008년과 2017년 지니계수의 차이가 크지 않다. 그리고 분석기간 동안 소농의 그룹 지니계수는 전체 농가의 지니계수보다 낮은 기간이 많고, 중대농의 그룹 지니계수는 전체 분석기간 동안 전체 농가의 지니계수보다 같거나 높은 기간이 많다. 또한 소농의 지니계수는 분석기간 동안 중대농의 지니계수보다 변동 정도가 작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대농 간 소득의 차이가 소농보다 큰 편이고 중대농 간 연간 소득 차이의 변화가 소농보다 큰 편임을 보여준다.

<표 2>의 결과는 지니계수의 상대적 기여도가 분석기간 동안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2008년 2ha 미만 농가(소농)의 그룹 내 지니계수의 상대적 기여도는 0.35에서 2012년 0.38로 다소 증가하였고, 2013년 0.43에서 2017년 0.47로 증가하였다. 반면 2ha 이상 농가(중대농)의 지니계수 상대적 기여도는 2008년 0.15에서 2017년 0.09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요인으로 농가의 표준영농규모 감소가 있다. 이 기간 동안 농가의 평균 표준영농규모는 2008년 2.0ha에서 2017년 1.8ha로 감소하였다.<sup>8</sup> 농가의 영농규모가 확대되지 않고 오히려 최근 들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2008년 표준영농규모 기준 소농과 중대농의 인구구성비는 0.67과 0.33에서 2017년 0.75와 0.25로 변화하였다. 소농의 비중은 증가하고 중대농의 비중이 감소하여 중대농의 평균 대비 높은 소득에도 그룹 내 기여도가 감소하였다.

8 농가의 표준영농규모 감소 요인으로는 경지면적의 감소와 농지가격의 상승이 있다.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농가의 평균 경지면적은 2008년 13,725㎡에서 2017년 12,546㎡으로 감소하였고, 농가의 경지면적당(㎡) 가격 평가액은 2008년 14.4천 원/㎡에서 2017년 22.4천 원/㎡으로 증가하였다.

표 2. 표준영농규모별 지니계수 기여도

단위: ha, 천 원

연도	표준 영농규모	인구 구성비	평균표준 영농규모	평균소득	그룹 평균소득	지니 계수	그룹 지니계수	상대적 기여도		
								그룹 내	그룹 간	잔차항
2008	2ha 미만	0.67	2.0	30,521	26,467	0.39	0.37	0.35	0.25	0.25
	2ha 이상	0.33			40,418			0.15		
2009	2ha 미만	0.66	2.1	30,814	26,614	0.40	0.38	0.35	0.25	0.25
	2ha 이상	0.34			40,871			0.15		
2010	2ha 미만	0.67	2.0	32,121	27,756	0.42	0.39	0.35	0.26	0.24
	2ha 이상	0.33			44,243			0.15		
2011	2ha 미만	0.65	2.1	30,148	26,955	0.42	0.40	0.34	0.24	0.26
	2ha 이상	0.35			41,308			0.16		
2012	2ha 미만	0.68	2.0	31,031	27,890	0.43	0.40	0.38	0.24	0.25
	2ha 이상	0.32			43,164			0.13		
2013	2ha 미만	0.70	2.0	34,524	31,351	0.41	0.40	0.43	0.20	0.26
	2ha 이상	0.30			45,575			0.39		
2014	2ha 미만	0.70	2.0	34,950	31,322	0.42	0.40	0.40	0.22	0.26
	2ha 이상	0.30			47,408			0.43		
2015	2ha 미만	0.72	1.9	37,215	32,617	0.41	0.38	0.41	0.25	0.22
	2ha 이상	0.28			52,601			0.43		
2016	2ha 미만	0.74	1.8	37,197	34,032	0.41	0.39	0.45	0.21	0.24
	2ha 이상	0.26			50,681			0.42		
2017	2ha 미만	0.75	1.8	38,239	34,783	0.41	0.39	0.47	0.22	0.23
	2ha 이상	0.25			53,351			0.41		

주: 명목소득 기준임.

자료: 통계청 MDIS(mdis.kostat.go.kr).

그룹 간 지니계수의 상대적 기여도 또한 지난 기간 변화를 보인다. 2008년 그룹 간 지니계수의 상대적 기여도는 0.25에서 2017년 0.22로 다소 감소하였다. 그리고 <표 1>에서 살펴본 연령별 지니계수의 그룹 간 기여도에 비하여 낮은 비중을 보인다. 이는 연령별 구분에 의한 평균소득 차이가 표준영농별 구분에 의한 평균소득 차이보다 크기 때문이다. 또한 평균 농가소득과 격차가 작은 소농의 비중 증가와 평균 농가소득과 격차가 큰 중대농의 비중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잔차항의 2008년 기여도는 0.25에서 2017년 0.23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잔차항의 기여도가 <표 1>에서의 잔차항보다 높다는 점은 표준영농규모로 구분한 농가의 소득 겹침 정도가 연령을 기준으로 한 농가의 소득 겹침 정도보다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농가의 농외소득 비중 등의 증가로

표준영농규모는 작지만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농가가 많은 것과 연관된 것으로 판단된다.

### 3.3. 농가 유형별 소득 불평등도 분석

<표 3>은 농가 유형별 지니계수 기여도를 분석한 표이다. <표 3>은 각 연도별로 유형별 인구 구성비, 평균소득, 유형별 농가소득, 전체 지니계수, 그룹 지니계수, 상대적 그룹 내 지니계수 기여도, 그룹 간 지니계수 기여도, 잔차의 기여도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청장년소농, 청장년중대농, 고령소농의 지니계수는 2008년 각각 0.35, 0.40, 0.35에서 2017년 0.35, 0.40, 0.35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고령중대농의 지니계수는 2008년 0.35에서 2017년 0.37로 약간 증가하였다. 같은 연령대에서 소농보다는 중대농의 지니계수가 높으며, 중대농의 지니계수 변동이 소농보다 높은 모습을 보인다. 또한 유형별 각 그룹의 지니계수보다 전체 지니계수의 값이 높은 경우가 많다. 이는 유형별 농가소득 격차가 전체 농가의 소득 격차보다 작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청장년중대농의 농가소득 격차는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의 농가보다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유형별 그룹 내 지니계수의 상대적 기여도는 분석기간 동안 변화를 보인다. 이는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유형별 인구 비중의 변화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청장년소농 그룹 내 지니계수의 상대적 기여도는 2008년 0.07에서 2017년 0.05로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청장년소농의 인구 비중은 2008년 0.26에서 2017년 0.21로 감소하였다. 청장년중대농의 전체 지니계수에 대한 그룹 내 상대적 기여도는 2008년 0.06에서 2017년 0.02로 감소하였으며, 인구구성비 또한 2008년 0.20에서 2017년 0.10으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고령소농의 2008년 그룹 내 지니계수의 상대적 기여도는 0.10이었지만 2017년 0.17로 증가하였고, 인구 비중은 2008년 0.40에서 2017년 0.54로 증가하였다. 고령중대농의 그룹 내 지니계수의 상대적 기여도는 2008년 0.02에서 2017년 0.02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고령중대농의 인구 비중은 2008년 0.13에서 2017년 0.15로 약간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장년중대농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니계수를 보이지만 인구 비중의 감소로 농가 전체의 지니계수 증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형 간 상대적 기여도 또한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룹 간 지니계수의 상대적 기여도는 2008년 0.40에서 2017년 0.4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농가 유형이 증가함에 따라 그룹 내

지니계수 기여도 값은 감소하지만, 전체 소득 평균과 유형별 소득 평균 차이가 세분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형별 지니계수 분석의 잔차 또한 분석기간 동안 변화를 보인다. 그룹 내 지니계수와 그룹 간 지니계수로 설명되지 않는 잔차는 2008년 0.36에서 2012년 0.33으로 감소하였고, 2013년 0.30에서 2017년 0.27로 감소하였다. 이는 유형별 소득이 겹치는 부분의 정도가 과거에 비해 최근 감소하여 유형별로 소득의 차이가 뚜렷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고령소농의 비중 증가로 인하여 농가소득의 겹치는 부분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니계수 분석 결과는 지난 10년간 유형별 기여도에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전체 농가의 지니계수 증가는 고령농의 그룹 지니계수 증가, 고령소농의 그룹 내 기여도 증가, 잔차항의 감소로 발생하였다. 하지만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농가 전체 지니계수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것은 농가의 유형별 비중이 유지된 상황에서 유형 간 소득 불균형이 완화된 것이 아닌 농가의 고령소농화에 있음을 보여준다. 고령소농의 그룹 지니계수가 2013년 0.38에서 2017년 0.35로 감소하였고, 기여도는 0.11에서 0.17로 증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형별 소득 차이로 인한 기여도는 0.45에서 0.47로 약간 증가하였고, 유형별 소득의 겹침(잔차항)은 약간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고령소농의 증가가 지속되면 전체 농가의 지니계수가 고령소농의 지니계수에 더욱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유형 간 소득의 차이 또한 소득 불평등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한편으로 농가의 고령소농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는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소수의 농가 유형으로 인하여 전체 농가의 소득 불평등도가 고령소농의 소득 불평등도보다 높다. 2017년 고령소농의 비중은 전체의 54%이고 그룹 지니계수는 0.35이지만 농가 전체의 지니계수는 이보다 높은 0.41이다. 따라서 농가의 소득 불평등도를 관점에 따라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표 3. 유형별 지니계수 기여도

단위: 천 원

연도	유형	인구 구성비	평균소득	그룹 평균소득	지니계수	그룹 지니계수	상대적 기여도		
							그룹 내	그룹 간	잔차항
2008	청장년소농	0.26	30,521	33,521	0.39	0.35	0.07	0.40	0.36
	청장년중대농	0.20		46,434		0.40	0.06		
	고령소농	0.40		21,837		0.35	0.10		
	고령중대농	0.13		31,123		0.35	0.02		
2009	청장년소농	0.24	30,814	36,116	0.40	0.35	0.06	0.46	0.31
	청장년중대농	0.20		49,333		0.38	0.06		
	고령소농	0.42		21,104		0.36	0.10		
	고령중대농	0.14		28,884		0.36	0.02		
2010	청장년소농	0.24	32,121	37,877	0.42	0.34	0.05	0.46	0.30
	청장년중대농	0.18		54,877		0.41	0.06		
	고령소농	0.43		22,129		0.37	0.11		
	고령중대농	0.15		30,706		0.40	0.02		
2011	청장년소농	0.22	30,148	38,163	0.42	0.36	0.05	0.44	0.32
	청장년중대농	0.17		51,151		0.41	0.05		
	고령소농	0.44		21,442		0.38	0.11		
	고령중대농	0.17		31,308		0.39	0.03		
2012	청장년소농	0.21	31,031	39,003	0.43	0.35	0.04	0.41	0.33
	청장년중대농	0.15		53,967		0.40	0.04		
	고령소농	0.48		23,126		0.39	0.15		
	고령중대농	0.17		33,315		0.43	0.03		
2013	청장년소농	0.28	34,524	43,153	0.41	0.36	0.08	0.45	0.30
	청장년중대농	0.16		56,121		0.37	0.04		
	고령소농	0.42		23,487		0.38	0.11		
	고령중대농	0.14		33,516		0.36	0.02		
2014	청장년소농	0.25	34,950	44,567	0.42	0.36	0.07	0.47	0.30
	청장년중대농	0.14		61,260		0.42	0.03		
	고령소농	0.44		23,758		0.36	0.11		
	고령중대농	0.16		34,759		0.37	0.02		
2015	청장년소농	0.24	37,215	46,180	0.41	0.35	0.06	0.48	0.28
	청장년중대농	0.12		70,864		0.41	0.03		
	고령소농	0.48		25,700		0.35	0.13		
	고령중대농	0.15		37,880		0.38	0.02		
2016	청장년소농	0.23	37,197	51,609	0.41	0.35	0.06	0.48	0.27
	청장년중대농	0.11		67,609		0.41	0.02		
	고령소농	0.51		26,158		0.34	0.15		
	고령중대농	0.16		39,141		0.39	0.02		
2017	청장년소농	0.21	38,239	52,416	0.41	0.35	0.05	0.47	0.27
	청장년중대농	0.10		73,181		0.40	0.02		
	고령소농	0.54		27,777		0.35	0.17		
	고령중대농	0.15		40,694		0.37	0.02		

주: 명목소득 기준임.

자료: 통계청 MDIS(mdis.kostat.go.kr).

추가적으로 <부표 2>, <부표 3>, <부표 4>, <부표 5>는 유형별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의 지니계수 기여도를 분석한 표이다.<sup>9</sup> 2017년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의 지니계수는 각각 0.76, 0.68, 0.44, 0.64이며, 각 원천별 소득의 지니계수는 농가소득의 지니계수(0.41)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각 소득이 서로 보완하며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농업소득의 지니계수는 다른 소득의 지니계수와 달리 분석기간 동안 소득 불평등도가 심화되고 있다. 청장년중대농을 제외한 청장년소농, 고령소농, 고령중대농의 지니계수가 상승하고 있으며, 평균소득과 유형 간 소득 차이로 인한 그룹 간 지니계수 기여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8년 고령소농의 농업소득에 대한 그룹 지니계수는 0.53에서 2017년 0.68로 증가하였고, 기여도는 0.07에서 0.13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고령소농의 2008년 이전소득에 대한 그룹 지니계수는 0.48에서 2017년 0.36으로 감소하였으며, 기여도는 0.17에서 0.24로 증가하였다. 비경상소득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농외소득은 그룹 지니계수에 큰 변화가 없지만 기여도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의 비중 감소와 다른 소득의 불평등 완화 효과로 농가소득 전체의 불평등도가 최근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농업소득만으로는 농가소득 불평등도 완화와 소득의 안정성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또한 고령소농의 농업소득 지니계수가 악화되는 모습은 고령소농 간에도 농업의 효율성 차이가 높은 편임을 보여준다.

#### 4.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는 연령과 표준영농규모를 이용하여 농가를 유형화하고, 소득 불평등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불평등도를 농가 유형별로 분석하고, 유형별 그룹 내 지니계수, 그룹 간 지니계수, 그리고 그룹 내와 그룹 간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잔차)의 지니계수가 전체 지니계수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하였다.

<sup>9</sup> 소득원천별 기여도 분석은 기존의 연구에서 많이 제시되어 있고, 이 연구는 소득 불평등도의 농가 유형별 기여도 분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원천별 결과는 부표로 제시하였다.



분석기간 동안 농가소득원별 전체 지니계수는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증가하다가 최근 들어 큰 변화 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각 유형별 지니계수의 값 또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오히려 몇몇 유형의 경우 농가 전체의 소득 불평등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니계수의 기여도 측면에서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연령별 분석 결과, 경영주 연령 65세 미만 농가(청장년 농가)의 전체 지니계수에 대한 그룹 내 기여도는 감소하였으나 65세 이상 농가(고령 농가)의 기여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표준영농규모별 분석 결과, 2ha 미만 농가(소농) 그룹 내 지니계수의 전체 지니계수에 대한 기여도는 증가하고 있고, 2ha 이상 농가(중대농)의 그룹 내 지니계수의 기여도는 감소하였다. 셋째, 연령과 표준영농규모를 결합한 농가 유형별 분석 결과, 청장년소농, 청장년중대농의 그룹 내 지니계수의 전체 지니계수에 대한 기여도는 감소하고 있지만, 고령소농의 기여도는 증가하고 있고, 고령중대농의 기여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전체 농가의 지니계수와 각 그룹의 지니계수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농가의 유형별 비중이 변함에 따라 기여도 측면에서 농가의 소득 불평등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농가소득의 지니계수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은 전체 농가에서 소규모 농가와 고령 농가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농가의 동질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농가의 영농규모가 확대되거나 농가소득이 상향평준화되어 소득 불평등도가 유지되고 있다기보다는 농가의 고령화와 소규모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농가소득 원천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농업소득의 지니계수는 악화되고 있지만, 다른 소득원의 불평등도 완화 효과로 인하여 전체 농가소득의 불평등도 심화를 완화시키고 있다. 이는 농업소득은 불안정성이 높은 반면, 농외소득과 정부의 보조금 등이 전소득의 불평등도가 낮아 농가소득 불평등도 심화를 보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농가 유형별 소득 불평등 분석 결과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첫째, 고령 소농에 대한 정부 지원방식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농가의 고령화, 소농화 비중이 높아지면서 동질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농가 간 소득 불평등도의 심화도 문제이지만, 고령농가일수록 정부 보조금 등 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농가 비중이 높아진다는 점 등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직불금 지원방식의 경우, 현재는 농지면적 단위로 지원하고 있어서 영농규모별 편차가 크다. 현행 면적 기준 지원 방식을 농가 혹은 농업인 기준으로 전환하여 일정 금액을 지원할 경우 농가 간 소득 불평등 정도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표준영농규모가 큰 중대농은

소농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니계수의 연도별 변화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후변화와 농산물 가격 등 경영상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그룹의 경영 및 소득 안정화를 위해서는 재해보험 확충, 농가 수입 안정성 확보 등 경영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적용한 다양한 농가 유형화 방식 중에서 연령과 표준영농규모를 적용하여 지니계수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농가 유형화는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어떤 유형화 방식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분석 결과와 시사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농가소득원별 불평등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시사점 도출에 초점을 두었으며, 농가 구성 변화와 영농규모 변화 등 농업구조 변화가 농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부분은 이 연구의 한계로 별도의 연구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고갑석·김윤식. 2016. “지니계수 분해법을 활용한 농가소득의 불평등 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제43권 제4호 pp. 733-758. 한국농식품정책학회. UCI: G704-000650.2016.43.4.001

김미복·오내원·황의식. 2016. “농가유형별 소득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KREI 농정포커스』 제13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수석·김태곤·강혜정. 2006. 『맞춤형 농정을 위한 농가유형 구분 연구』. W2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한호·김재경·김부연·윤성은·한봉희. 2012.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한 유형별 농업경영체 특성분석』. 농림수산식품부.

박준기·김미복·김태훈·이두영·박지연. 2018. 『농업·농촌 정책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방안(1/5차년도)』. R85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준기·문한필·김용택. 2004. “농가소득 불평등도의 요인분해.” 『농촌경제』 제27권 제4호 pp. 15-2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CI: G704-000576.2004.27.4.006

안동환. 2004. “도시근로자가구와 농가의 소득불평등도 비교 분석: 엔트로피지수의 그룹별·소득원별 분해.” 『농업경제연구』 제45권 제1호 pp. 21-46. 한국농업경제학회. UCI: G704-000586.2004.45.1.007

오내원·박준기·정원호·권오상·강혜정. 2013. 『농가소득의 증장기 실태 분석』. M13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병준·임소영·이두영·이형용·한보현. 2017. “농가유형에 따른 소득 변화와 시사점.” 『KREI 농정포커스』 제157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병준·임소영·이두영·이형용·한보현. 2018. 『2017년 농업경영체 실태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병기. 2000. “한국경제위기 전후 농가소득불균등 변화와 정책과제.” 『농업경영·정책연구』 제27권 제2호 pp. 25-40. 한국농식품정책학회.

이태호. 2016. “한국 농업의 생산구조와 농정방향.” 『계간농정연구』 제60권 제0호 pp. 65-102. 농정연구센터.

임병인·전승훈. 2005. “연령집단별 소득불평등도와 전체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 분석.”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제6회』. pp. 421-436. 한국노동연구원.

정진화·조현정. 2012. “농가소득의 양극화: 경영주 연령 및 소득원별 비교.” 『농업경영·정책연구』 제39권 제3호 pp. 420-450. 한국농식품정책학회. UCI: G704-000650.2012.39.3.002

최양부·박성재·오내원. 1983. 『농가경제의 유형과 성격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계청. 2016. 『농가경제조사 통계정보 보고서』.

허등용. 2018. “샤플리 값을 이용한 농가소득 불평등도의 소득원천별 기여도 분석.” 『농촌경제』 제41권 제4호 pp. 1-2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홍민기. 2016. 『불평등 지표 개선연구』. 2016-04. 한국노동연구원.

황수철. 2018. “농업발전전략을 바꿔라.” 『농정연구』 제67권 제0호 pp. 14-79. 농정연구센터.

황의식·문한필. 2003. 『농가경제 불안정 실태와 요인 분석』. R46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Bellù, L.G. and Liberati, P.. 2006. “Policy impacts on inequality: Decomposition of income inequality by subgroup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EASYPol Module, 52.

Lambert, P.J. and Aronson, J.R. 1993. “Inequality decomposition analysis and the Gini coefficient revisited.” *The Economic Journal*. vol. 103, no. 420, pp. 1221-1227. doi: 10.2307/2234247

Piketty, T. 2014. *Capital in the 21st Century*. Harvard University Press. doi: 10.4159/9780674369542

UNRISD. 2013. *Inequalities and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A Concept Note*. Geneva: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통계청 MDIS. <mdis.kostat.go.kr>. 접속일: 2018. 10. 30.

원고 접수일: 2019년 2월 7일
원고 심사일: 2019년 2월 11일
심사 완료일: 2019년 3월 14일

부표 1. 농가소득 동향

단위: 천 원, %

연도	농가소득 동향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2008	30,521	9,653	11,352	5,289	4,226
2009	30,814	9,698	12,128	5,481	3,508
2010	32,121	10,098	12,946	5,610	3,467
2011	30,148	8,753	12,949	5,453	2,993
2012	31,031	9,127	13,585	5,614	2,705
2013	34,524	10,035	15,705	5,844	2,940
2014	34,950	10,303	14,799	6,819	3,029
2015	37,215	11,257	14,939	7,906	3,114
2016	37,197	10,068	15,252	8,783	3,095
2017	38,239	10,047	16,269	8,902	3,022
'17/'16 증감률(%)	2.8	-0.2	6.7	1.4	-2.4
'08~'17 연평균 증감률(%)	2.5	0.4	4.1	6.0	-3.7

주: 명목소득 기준임.

자료: 통계청 MDIS([mdis.kostat.go.kr](http://mdis.kostat.go.kr)).

부표 2. 유형별 농업소득 지니계수 기여도

단위: 천 원

연도	유형	인구 구성비	평균 농업소득	지니계수	그룹 지니계수	상대적 기여도		
						그룹 내	그룹 간	잔차항
2008	청장년소농	0.26	5,535	0.65	0.67	0.04	0.52	0.27
	청장년중대농	0.20	23,100		0.61	0.09		
	고령소농	0.40	5,261		0.53	0.07		
	고령중대농	0.13	15,134		0.48	0.02		
2009	청장년소농	0.24	6,592	0.67	0.71	0.04	0.50	0.28
	청장년중대농	0.20	23,759		0.60	0.08		
	고령소농	0.42	5,198		0.59	0.08		
	고령중대농	0.14	12,605		0.51	0.02		
2010	청장년소농	0.24	7,522	0.71	0.74	0.04	0.49	0.29
	청장년중대농	0.18	27,049		0.67	0.08		
	고령소농	0.43	5,403		0.61	0.08		
	고령중대농	0.15	13,014		0.59	0.02		
2011	청장년소농	0.22	6,899	0.70	0.75	0.03	0.47	0.31
	청장년중대농	0.17	23,400		0.66	0.06		
	고령소농	0.44	5,212		0.61	0.08		
	고령중대농	0.17	15,186		0.57	0.04		
2012	청장년소농	0.21	6,665	0.71	0.75	0.03	0.47	0.31
	청장년중대농	0.15	26,443		0.64	0.05		
	고령소농	0.48	5,728		0.64	0.11		
	고령중대농	0.17	16,334		0.63	0.04		
2013	청장년소농	0.28	6,980	0.70	0.76	0.05	0.49	0.30
	청장년중대농	0.16	28,396		0.60	0.05		
	고령소농	0.42	5,749		0.61	0.08		
	고령중대농	0.14	15,800		0.58	0.02		
2014	청장년소농	0.25	7,672	0.73	0.78	0.05	0.50	0.29
	청장년중대농	0.14	31,597		0.64	0.05		
	고령소농	0.44	5,504		0.63	0.08		
	고령중대농	0.16	15,544		0.62	0.03		
2015	청장년소농	0.24	7,090	0.75	0.79	0.04	0.53	0.27
	청장년중대농	0.12	39,642		0.63	0.04		
	고령소농	0.48	5,879		0.65	0.10		
	고령중대농	0.15	17,845		0.63	0.03		
2016	청장년소농	0.23	7,734	0.76	0.79	0.04	0.51	0.27
	청장년중대농	0.11	36,538		0.65	0.03		
	고령소농	0.51	5,358		0.68	0.11		
	고령중대농	0.16	18,047		0.66	0.03		
2017	청장년소농	0.21	7,846	0.76	0.85	0.04	0.49	0.28
	청장년중대농	0.10	37,097		0.63	0.03		
	고령소농	0.54	5,673		0.68	0.13		
	고령중대농	0.15	18,812		0.62	0.03		

주: 명목소득 기준임.

자료: 통계청 MDIS(mdis.kostat.go.kr).

부표 3. 유형별 농외소득 지니계수 기여도

단위: 천 원

연도	유형	인구 구성비	평균 농외소득	지니계수	그룹 지니계수	상대적 기여도		
						그룹 내	그룹 간	잔차항
2008	청장년소농	0.26	19,712	0.67	0.54	0.10	0.39	0.35
	청장년중대농	0.20	13,242		0.63	0.05		
	고령소농	0.40	6,829		0.72	0.10		
	고령중대농	0.13	5,580		0.74	0.01		
2009	청장년소농	0.24	21,206	0.66	0.52	0.08	0.39	0.36
	청장년중대농	0.20	15,456		0.62	0.05		
	고령소농	0.42	7,378		0.70	0.11		
	고령중대농	0.14	6,338		0.72	0.01		
2010	청장년소농	0.24	22,996	0.66	0.51	0.08	0.38	0.37
	청장년중대농	0.18	16,286		0.59	0.04		
	고령소농	0.43	8,128		0.70	0.12		
	고령중대농	0.15	7,492		0.72	0.01		
2011	청장년소농	0.22	24,403	0.68	0.52	0.07	0.40	0.35
	청장년중대농	0.17	17,447		0.63	0.04		
	고령소농	0.44	8,066		0.71	0.12		
	고령중대농	0.17	6,858		0.75	0.02		
2012	청장년소농	0.21	25,805	0.68	0.50	0.06	0.37	0.36
	청장년중대농	0.15	17,451		0.63	0.03		
	고령소농	0.48	9,247		0.72	0.16		
	고령중대농	0.17	7,568		0.74	0.02		
2013	청장년소농	0.28	29,025	0.64	0.49	0.11	0.46	0.29
	청장년중대농	0.16	17,867		0.61	0.03		
	고령소농	0.42	8,839		0.67	0.10		
	고령중대농	0.14	7,165		0.70	0.01		
2014	청장년소농	0.25	28,667	0.67	0.51	0.10	0.44	0.31
	청장년중대농	0.14	18,851		0.64	0.02		
	고령소농	0.44	8,291		0.69	0.11		
	고령중대농	0.16	7,965		0.70	0.01		
2015	청장년소농	0.24	30,580	0.67	0.50	0.09	0.46	0.28
	청장년중대농	0.12	18,789		0.62	0.02		
	고령소농	0.48	8,192		0.70	0.13		
	고령중대농	0.15	8,079		0.69	0.01		
2016	청장년소농	0.23	34,107	0.68	0.49	0.08	0.49	0.25
	청장년중대농	0.11	19,128		0.62	0.01		
	고령소농	0.51	8,570		0.68	0.14		
	고령중대농	0.16	7,345		0.73	0.01		
2017	청장년소농	0.21	34,516	0.68	0.48	0.07	0.45	0.27
	청장년중대농	0.10	23,328		0.62	0.01		
	고령소농	0.54	10,094		0.70	0.18		
	고령중대농	0.15	8,195		0.73	0.01		

주: 명목소득 기준임.

자료: 통계청 MDIS(mdis.kostat.go.kr).

부표 4. 유형별 이전소득 지니계수 기여도

단위: 천 원

연도	유형	인구 구성비	평균 이전소득	지니계수	그룹 지니계수	상대적 기여도		
						그룹 내	그룹 간	잔차항
2008	청장년소농	0.26	3,836	0.52	0.63	0.06	0.17	0.54
	청장년중대농	0.20	5,241		0.52	0.04		
	고령소농	0.40	6,052		0.48	0.17		
	고령중대농	0.13	5,950		0.38	0.01		
2009	청장년소농	0.24	4,038	0.50	0.63	0.06	0.19	0.54
	청장년중대농	0.20	5,458		0.52	0.04		
	고령소농	0.42	5,741		0.42	0.16		
	고령중대농	0.14	7,244		0.45	0.02		
2010	청장년소농	0.24	3,689	0.50	0.61	0.05	0.19	0.52
	청장년중대농	0.18	5,981		0.52	0.04		
	고령소농	0.43	6,093		0.46	0.18		
	고령중대농	0.15	6,872		0.41	0.02		
2011	청장년소농	0.22	3,637	0.49	0.63	0.04	0.18	0.54
	청장년중대농	0.17	5,732		0.53	0.03		
	고령소농	0.44	5,779		0.41	0.17		
	고령중대농	0.17	6,617		0.43	0.03		
2012	청장년소농	0.21	3,893	0.48	0.65	0.04	0.16	0.54
	청장년중대농	0.15	6,039		0.52	0.03		
	고령소농	0.48	5,859		0.41	0.20		
	고령중대농	0.17	6,648		0.42	0.03		
2013	청장년소농	0.28	4,086	0.51	0.68	0.07	0.20	0.52
	청장년중대농	0.16	6,531		0.47	0.03		
	고령소농	0.42	6,283		0.44	0.17		
	고령중대농	0.14	7,310		0.36	0.02		
2014	청장년소농	0.25	5,083	0.49	0.69	0.07	0.16	0.56
	청장년중대농	0.14	7,367		0.52	0.02		
	고령소농	0.44	7,218		0.39	0.17		
	고령중대농	0.16	7,990		0.34	0.02		
2015	청장년소농	0.24	5,267	0.45	0.67	0.06	0.20	0.50
	청장년중대농	0.12	8,863		0.46	0.02		
	고령소농	0.48	8,570		0.36	0.20		
	고령중대농	0.15	9,242		0.32	0.02		
2016	청장년소농	0.23	6,759	0.45	0.67	0.06	0.15	0.53
	청장년중대농	0.11	8,909		0.48	0.01		
	고령소농	0.51	9,154		0.37	0.22		
	고령중대농	0.16	10,423		0.33	0.02		
2017	청장년소농	0.21	6,306	0.44	0.67	0.05	0.20	0.48
	청장년중대농	0.10	8,878		0.47	0.01		
	고령소농	0.54	9,279		0.36	0.24		
	고령중대농	0.15	11,201		0.31	0.02		

주: 명목소득 기준임.

자료: 통계청 MDIS(mdis.kostat.go.kr).



부표 5. 유형별 비경상소득 지니계수 기여도

단위: 천 원

연도	유형	인구 구성비	평균 비경상소득	지니계수	그룹 지니계수	상대적 기여도		
						그룹 내	그룹 간	잔차항
2008	청장년소농	0.26	4,438	0.67	0.72	0.08	0.09	0.64
	청장년중대농	0.20	4,850		0.67	0.05		
	고령소농	0.40	3,696		0.62	0.13		
	고령중대농	0.13	4,459		0.68	0.02		
2009	청장년소농	0.24	4,279	0.75	0.78	0.08	0.17	0.56
	청장년중대농	0.20	4,659		0.75	0.05		
	고령소농	0.42	2,787		0.72	0.13		
	고령중대농	0.14	2,697		0.66	0.01		
2010	청장년소농	0.24	3,670	0.74	0.77	0.06	0.22	0.52
	청장년중대농	0.18	5,561		0.80	0.06		
	고령소농	0.43	2,504		0.66	0.12		
	고령중대농	0.15	3,327		0.73	0.02		
2011	청장년소농	0.22	3,224	0.74	0.79	0.05	0.18	0.55
	청장년중대농	0.17	4,573		0.79	0.05		
	고령소농	0.44	2,385		0.67	0.14		
	고령중대농	0.17	2,647		0.68	0.02		
2012	청장년소농	0.21	2,640	0.73	0.78	0.04	0.14	0.58
	청장년중대농	0.15	4,035		0.81	0.04		
	고령소농	0.48	2,292		0.65	0.17		
	고령중대농	0.17	2,765		0.73	0.03		
2013	청장년소농	0.28	3,063	0.71	0.81	0.09	0.08	0.64
	청장년중대농	0.16	3,328		0.76	0.03		
	고령소농	0.42	2,616		0.62	0.14		
	고령중대농	0.14	3,242		0.65	0.02		
2014	청장년소농	0.25	3,146	0.68	0.77	0.08	0.07	0.65
	청장년중대농	0.14	3,444		0.76	0.03		
	고령소농	0.44	2,745		0.57	0.15		
	고령중대농	0.16	3,260		0.65	0.03		
2015	청장년소농	0.24	3,243	0.65	0.74	0.07	0.06	0.63
	청장년중대농	0.12	3,570		0.79	0.02		
	고령소농	0.48	3,058		0.57	0.19		
	고령중대농	0.15	2,715		0.56	0.02		
2016	청장년소농	0.23	3,009	0.68	0.78	0.09	0.02	0.65
	청장년중대농	0.11	3,033		0.77	0.01		
	고령소농	0.51	3,075		0.60	0.23		
	고령중대농	0.16	3,326		0.65	0.03		
2017	청장년소농	0.21	3,748	0.64	0.77	0.07	0.13	0.54
	청장년중대농	0.10	3,878		0.75	0.01		
	고령소농	0.54	2,731		0.57	0.23		
	고령중대농	0.15	2,486		0.51	0.02		

주: 명목소득 기준임.

자료: 통계청 MDIS(mdis.kostat.go.kr).